



한농연 중앙연합회 소식

한농연중앙연합회 헌법재판소에 한·중 마늘협정 합의서에 대해 가처분 신청!!

지난 9월 13일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과 함께 김태욱 변호사를 통해 한·중 마늘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정식 청구하였다. 한·중 마늘협정 무효 헌법소원 청구는 국민의 알권리와 생산자의 피해조사 신청권을 침해한 정부의 위헌행위와 무분별한 개방농정을 중단시킴으로써 농민생존권을 수호하고자 전농과 공동으로 법정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은 판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한·중마늘 협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는, 세이프 가드가 중단되고 중국산 마늘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는 2003년 1월 1일까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한농연중앙연합회는 한·중 마늘협정의 효력이 한·중 마늘협정 무효 헌법 소원 결정 선고까지 발휘되지 않도록 한·중 마늘협정 합의서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지난 11월 1일 김태욱 변호사를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한농연,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국회에 단독 입법청원 !!



한농연중앙연합회가 지난 10월 31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반기부터 꾸준히 준비해온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특히, 지난해 농민단체협의회와 함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데 이어, 이번에는 단독으로 기초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청원함으로써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상당히 크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0월 31일(목) 14:30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국회 입법청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1월 8일 마감한 정기국회를 통해, 한농연이 단독 입법청원 한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은 박희태, 김영진, 원철희 등 3명을 대표소개의원으로 총 16명의 국회의원이 소개하였다. 또한 한농연은 입법청원서와 함께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용지도 함께 제출하였다. 법안의 내용은 그동안 정부 부처간 분산되어 있는 농어촌 복지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농어촌지역의 사회보장을 비롯한 의료·교육·생활·문화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도시와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최근 어려움에 빠져있는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의미가 크다.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골자

- 가. 농어민 및 농어촌주민의 복지증대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여러 정부부처에서 분산 추진되어 온 사회복지정책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농어촌 복지를 비롯한 농어촌, 농어촌 주민에 대한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복지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강구하는 등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라. 이 법의 내용, 절차, 시행 등의 규정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함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를 2014년까지 연장하여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
- 바. 국가가 「농어촌복지발전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어촌지역의 복지증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
- 사. 농어촌복지발전대책은 「농어촌지역 국민연금의 대상 및 국가보조 확대」를 비롯한 총 15개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시책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시 필요한 보조금의 지급 및 세제·행정상의 모든 지원을 해야함을 규정함(안 제8조)
- 아. 도·농간 복지의 균형발전과 농어촌복지의 증대와 관련된 시책을 심의·의결하고 추진하기 위한 「농어촌복지특별대책추진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원칙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11조)
- 자.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농어촌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어촌복지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함(안 제15조)

※ 법안 원문은 한농연중앙연합회 홈페이지(www.kaff.or.kr) 정책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제11회 으뜸농산물전시회 서울농업무역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

전북도연합회 으뜸농산물전시회 품평회에 출품했던 농산물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

지난 11월 15일 서울농업무역센터(aT센터)에서 『제11회 전국오름농산물전시회』개막식이 성대하게

제11회 전국으뜸농산물전시회 대상 수상 내역

지역	출품자	품목	구분
경기도	이용호	참쌀	평택시
강원도	고남섭	감자	평창군
충청북도	박지환	쌀	청원군
충청남도	류재훈	메론	부여군
전라북도	김태균	쌀	김제시
전라남도	박상규	산수유	구례군
경상북도	김억식	고추	영양군
경상남도	손정태	단감	밀양시
제주도	임광수	감귤	서귀포
특광역	임두재	영지	대전광역시

열렸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김동태 농림부장관을 비롯하여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등 농업계 인사들과 한농연 각 도연합회 회장들 및 회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으뜸농산물전시회는 명칭에 걸맞게 전국 각지에서 으뜸이 될만한 다양한 농산물이 출품되어, 농업경영인의 앞선 영농기술과 우수한 농산물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시회 기간 내내 관람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지역을 걸고 출품된 우수한 농산물은 심사에 있어서도 치열한 각축을 벌였으며, 1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0일까지 품평회 및 전시회, 시상식 등이 진행되었다.

한편 전북도연합회는 으뜸농산물전시회가 끝난후 품평회에 출품했던 농산물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전북도연합회에서는 흑염소를 도난당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한농연 장수군연합회 번암면회장인이 승철 회원과 0~18세까지의 아동과 청소년을 수용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삼예원 2곳에 출품했던 농산물을 전달해 이웃사랑의 모범을 실천했다.

제11회 전국으뜸농산물전시회 기타 수상 내역

구분	상종류	품목	지역	출품자
곡류	금상	멥쌀	경기	권순일
	은상	쌀	충남	김권식
	동상	흑미	경기	이기철
잡곡		강원	강은식	
과일류	금상	배	충북	김영만
	은상	사과	경북	최태림
	동상	포도	전북	김두환
대추		경남	김경철	
채소류	금상	양파	경남	송성원
	은상	고추	전북	박일성
	동상	대파	부산광역시	조성제
		양파	충북	오석태
특작류	금상	작두콩	전남	홍순영
	은상	꿀	강원	윤상복
	동상	땅콩	제주	김상수
화훼류	금상	양란	전남	김양곤
	은상	장미	전북	안재호
	동상	국화	서울특별시	왕남식
특산품	금상	인삼	경북	조진기
	은상	키위	제주	오상익
	동상	버섯	충남	김문기
		메론	전남	이은상
단체상	충북도연합회			



한농연 지역연합회 소식

임실군연합회, 쌀 생산비 보장 촉구 위해 오수농협 점거농성

한농연임실군연합회(회장 박일성)는 10월 30일 오수농협 앞에서 '오수농협RPC의 쌀생산비 보장을 촉구하는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한여농, 농민회, 농촌지도자, 4-H연맹 등 8개 농민단체의 1백여 회원이 참여하였으며, 참석자들은 농협 앞에 벼 5백여 가마를 쌓아놓고 항의시위를 전개하였다.

임실군 농민들은 '이제는 회원농협마저 농민을 우롱하는가'라는 전단지를 통해 '오수농협RPC는 작년에도 전북도내 농협RPC 가운데 앞장서서 자체매입가격을 저가로 책정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으며 올해는 어느 조합보다도 먼저 선봉에 서서 저가수매방침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수농협 RPC는 5만2천원의 매입가로 자체수매를 즉각 중단하고 쌀 생산비 보장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며, 5개 요구사항을 반드시 관철시킬 때까지 점거농성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5개 요구사항은 △수매량을 지난해 수준과 동일하게 매입 △자체수매가를 5만7천원에 보장 △정부의 '쌀소득보전직불제' 거부 △지자체의 '직불제 예산'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이다.

그러나, 오수농협 조합장은 농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8개 농민단체에서는 즉각 오수농협 점거농성에 돌입하였다. 현재 점거농성은 지역별로 나뉘어서 철야농성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5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 하겠다는 임실군 농민들의 결의는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이다.

화성시연합회, 협동조합 임원 및 대의원교육 개최

화성시연합회(회장 윤공흠)는 11월 12일 화성시 태안읍사무소 대강당에서 협동조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한농연 출신 농축협 대의원과 이·감사 등 300명이 참석했다.

이재덕 한농연 사무총장은 「협동조합 이·감사의 활동방향」이라는 강연에서 '우리 농업의 위기상황과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농연이 요구하는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날 교육에는 농축협 대의원과 이·감사가 주축이 되어 참석해 강연내용 중 '농축협 이·감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더욱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였다. 특히 11월부터 본격적으로 '2003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수립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교육은 더욱 열기 높게 진행되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자기조합의 사업계획부터 농민조합원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농업경영인이 적극 참여해야 하며, 전체 조합으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한농연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구미시연합회, 민병석 회원 가족돕기 운동 진행

한농연구미시연합회 도개면회 민병석 회원이 지난 10월 22일 '400만 농민 총궐기대회' 집회에 참가한 후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정부의 농정실패에 항거하며 집회에 참석한 뒤 당한 교통사고라 주변 사람들을 더욱 더 안타깝게 하고 있다.

민병석 회원은 노모를 모시고 2남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회원의 가족은 가장이 죽었다는 충격을 벗어나기도 전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구미시연합회(회장 이규성)와 도개면회는 민병석 회원 가족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한농연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단결을 위해 '민병석 회원 가족 돕기 모금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경영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계좌번호 : 770 - 01 - 082735 (농협, 한농연경북)



그밖의 농업계 소식

WTO국민연대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대책회의 개최

WTO국민연대는 지난 11월 4일 농협중앙회 16층 회의실에서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김충실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포도회, 전국NGO연대, 농협중앙회 조사부 등 시민·사회·농민단체 대표 20여명이 참석하였다.

대책회의에서는 한·칠레 FTA 체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유인물 배포와 국회 비준거부 서명운동, 한·칠레 FTA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 요청 등 한·칠레 FTA 반대 여론 확산을 위한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회비준 거부 서명운동은 각 단체 지역조직에서 모든 국회의원이 서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회비준 거부 서명운동 촉구활동을 전개키로 하였으며, 도시지역에서는 시민·사회 단체가 서명운동을 전개하기

로 하였다. 또한 한·칠레 FTA에 대한 공개토론회는 KBS, MBC, SBS, EBS 등 방송사에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청하고, 각 단체에서 진행하는 집회에서 한·칠레 FTA 체결 반대와 부당성을 적극 알려내기로 하였다.

이 밖에 한·칠레 FTA 체결을 추진한 김동태 농림부 장관 퇴진 운동을 전개하며, “한·칠레 FTA 국회비준 거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칭)”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전농·전여농 농민 10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에서 전국농민대회 개최



▲ 농민 10만여명이 모인 것은 해방이후 처음이다.

지난 11월 13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은 여의도에서 전국에서 농민 10만 여명이 상경한 가운데 「WTO 쌀 수입개방 반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농민대회는 한농연중앙연합회 박홍수 회장을 비롯하여 유덕상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오종렬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정광훈 前 전농의장 등 시민·사회·농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WTO 쌀 수입개방 반대 ▲식량자급목표 법제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거부 ▲외교통상부 통상협상권 농림부로 이관 및 농민대표 참여보장 ▲농가부채 해결 ▲농산물 가격보장 대책 마련 ▲재해보상법 제정 ▲쌀값보장을 위한 특별대책 수립을 주요 골자로 한 8대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농과 전여농은 투쟁결의문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8대 요구사항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다짐하고, 만약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11월 25일 전국적 농기계 시위를 비롯한 2차 농민항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도 농민대회에 참석하였는데,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농민대회에 참석하여 자신들의 농업과 농민에 대한 견해를 밝혔으며, 이회창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농연**



▲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하철로 상경 중인 농민들.